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 nmaum

# “한마음의 ‘자동성’ 알면 모든문제 풀려”

### 세상살기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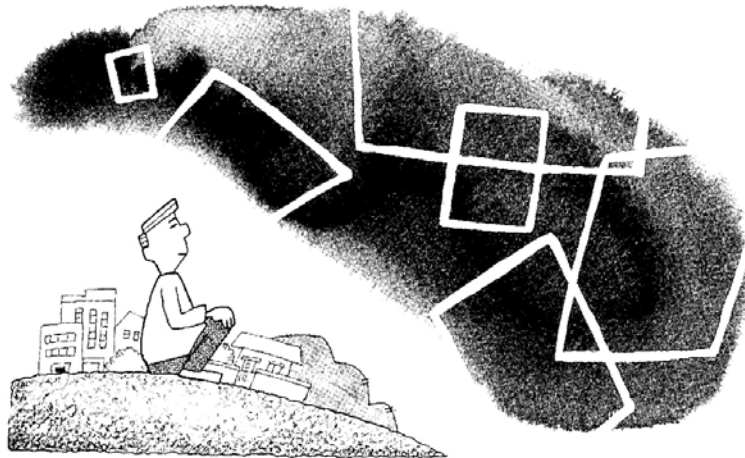
**문** 갈수록 세상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인류 생존이란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너무나 할 말도 많지만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말을 해도 한

에 공헌하게끔 만들죠. 그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러분의 자기자성이라고 했지만 바로 나의 마음의 근본인데 그게 우주의 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근본이 자기를 이끌어 인간이 되게 했고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이 되게끔 이끌고 굴러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온 자라도 변변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



그림·최주현

“이 세상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지구·국가·개인적 문제 해결되고 고차원까지 진화 할 수 있어요”

보람이 있고 그것이 법에 응응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모든 게 허탕이고 말이 한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이 공부를 한다고 하고, 문학을 하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인간의 문제, 세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다 물질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됐느냐? 왜 이렇게 인간으로써 등장하게 되었느냐? 또는 인간이려면 누구나 99%, 100% 부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거저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괜스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몸 받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자성이라는 그 한마음이 자기를 이끌면서 온갖 마음 씀씀이를 통해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성부처는 천번이고 만 번이고, 또는 수억번이라도 굴러고 굴러서 진짜 인간을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 왔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나라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할 때에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국가

면서 손가락이 어떻느냐 발가락이 어떻느냐 그런 논의만 하고 있던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자라도 변변히 몰라 가지고서 우주적인 일을 거론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겠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역사학이나 문화학 한번 되새겨 보면 진짜 사람들이 나와서 개발도 했고 인간이 좀체 하기 어려운 일도 해내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든 걸 물질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망하기도 했고 폐허가 되기도 했고, 문제가 여간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자고 인간이 생겨났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자성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써 우리 인간을 형성시킨 까닭이 그것 뿐이겠습니까?

이걸 어떤 말로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기 보다 자기로 인해 자기가 진화하고 개발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게 개별적인 자성이 아닌 전체, 전체로서의 불성이 그 자동성으로 우리들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자동성의 근본을 알아서 개발하고 진짜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발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거기엔 수만가지가 포함됩니다.

거기엔 진화도 포함되고 창조도 포함되고 일체만법의 근본을 알아서 만법을

## 물질·마음 조화 이뤄야 우주적 개발 가능 현실의 쬐는 배움의 재료·진화의 과정

작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얼른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 까를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사람들이 계 밭이 된다면 참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쓸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애초에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생 긴게 여간 많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진화력을 넣어 줌으로써 쓸모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둘째는 지구적인 문제 또는 세계적인

문제들인데 자기 자성을 좀 알게끔 한다든가 모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더불어 결부된다면, 말하자면 내가 그 쪽이 되어 줄 수 있고 물과 물이 합쳐 큰 물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해가 넓어지고 마음은 슬기롭게 돌아갈 것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 생각, 한 행이 다 우주법계의 근본과 같이 돌아갈테니까 말입니다.

셋째는 우주적인 문제까지도 다 한층 더 일처럼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른 혹성, 별성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가지가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에겐 그렇게 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유생 무생이 다 같이 있는 동안에 지금 한사람만 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참으로 초능력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과 물질을 동등하게 쓰는 게 못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실패하기 딱 심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로는 아무리 해도 3차원의 한계가 있지만 마음으로야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적인 개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만이 우리 동네가 아니거든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듯이, 그 소

망이 하늘 끝까지 닿는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인간도 한마음의 자동성으로서 무엇이 되었든지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그 불성의 값어치, 활용의 값어치, 화현의 값어치를 지닌 자식이 되어서 이 우주 전체, 어떤 혹성이든지 간에 다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물질에 억눌려서 살아간다면 나를 인간으로까지 일으켜 세우고 형성시킨 전체 한마음, 포괄적인 나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지만요.

그러기에 마음공부는 꼭 해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나는 내 몸이 아프거나 나 살기가 어려워져서 눈물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 부모님의 마음이 사연사연마다 피는 물이듯이 어떻게 하면 그 딱하고 가슴아픈 사연들을 지우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가지를 얘기했듯이 이 세상이 한마음으로 평등하게 돌아가야 지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야만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진화해서 스스로 근본을 알게끔 되어야 4차원을 바라볼 수 있고, 4차원을 바라볼 수 있을으로써 5차원 되기가 조금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갈림길이 되어야 했다. 스스로 알게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알게끔 해줘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거죠. 그렇다고 한사람 한사람을 일일이 상대하다간 어느 천년에 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굴러오면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며 오늘의 나를 형성시켰다는 걸 알고, 그 근본의 한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 어디에도 손 안닿는 데가 없다는 걸 알면 누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서 현실의 고리는 것이 고가 아니라 배움의 재료로 진화의 과정인 줄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5차원의 맛, 6차원의 맛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마음의 자동성, 한마음의 자동용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 네가 한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물음

씨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명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71

## 지팡이는 안에 있다. 바깥 지팡이 없음을 탓하라.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가지 고에서 벗어나다 해도 또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쉼 없이 고락을 만들어 내는 생산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 낸 것은 내가 수습해 들여야 한다.’

자기가 땅에 앉았으면 앉은 자리를 딛고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 놓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자기에게서 나온 것 자기가 거두어야만 한다.

달리보면 우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 내는 생산공장이자 동시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수집가이기도 하다. 고로 나온곳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집착을 떼지 못하니까 업이 되고 응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험난한 산길을 피해 물길을 잡았더니 풍파 또한 예상치 못했다. 어디 편하고 곧

은 길은 없을까. 우리는 평생 그런 화두를 안고 산다. 갈구하고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운명을 한탄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길은 ‘거기’에 있다. ‘여기’서 못찾았다면 거기에서도 못찾는다. 여기에서 마음 붙이지 못했다면 거기서도 마음 붙일 곳을 찾아낼 수 없다. 산길에서 못찾은 답이 물길에서 찾아질 리 없다.

길은 안에 있다. 바깥 대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는 길은 내 안에 있다. 구하고 싶거든 안으로 머리를 돌려라. 없애고 싶거든 지금부터라도 안으로 돌려라.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안에 있다. 길을 찾는 방법은 내속에 있다. 밖으로는 아무리 찾아헤매도 구해지지 않는다. 피해지지도 않는다. 밖으로 찾아 헤매다 보면 지향하면 할수록 거부하면 할수록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죽아가고 좋아해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가 거부하고 애착하는 것, 그것은 나의 관념·의식이 만들어 낸 상황일 뿐이지 사실이 아



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려낸 그림일 뿐이지 진짜 풍경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짓고 만든 상황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거기서 싫다 좋다를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고로 나의 처지가 바뀌기를 바라거든 거기서 뛰쳐나와 나로 돌아가야 한다. 상황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조건 따위와 관련된 분별·평가를 내던지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좋다고, 혹은 싫다고 판정내린 상황은 길을 찾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사실을 왜곡시켜 바른 결정을 저해하고 나의 진화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길을 찾고 싶거든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나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그려놓은 상들-나는 어떠한가 한다. 나는 어떻게든 남에서 ‘나’라는 사실 그 자체로 돌아와야 한다. ‘나’로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나’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은 한결같이 외부세계와 짝지어 놓은 것들일 뿐이다. 그것은 나도 아니요 외부세계도 아니다. 그림이 참모습일 수 없듯이 그것은 나의 진면목도 아니요 외부세계의 실상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덧칠해놓은 그

림 속에 길이 있다고 찾아 헤맬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머릿속 세기와 같다. 자기를 베놓고 쉼을 하니 몇 번을 되풀이 세어 보아도 정답이 나오질 않는다.

길을 찾으려거든 ‘나’부터 세어라. 나의 생각 나의 행동부터 되바뀌 보아라. 팔자운명이 잘 안풀리는 것은 ‘나’를 베놓고 쉼을 하기 때문이다. 외부세계만을 쉼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돌부리 때문에 넘어졌으니 그 돌부리보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제 힘으로 땅을 딛고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하겠는가.

자기 자신은 잘 안다. 원인도 잘 알고 길도 잘 안다. 모든 것을 자기자신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깨어남이다. 깨어나면 답이 보인다. 길이 열린다.

지팡이는 안에 있다. 바깥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다. 고로 마음들 끝 없다고 하지말라.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없노라고 하지말라. 제 지팡이 놓아두고 남의 지팡이 찾지말라.

협찬 : 신지연